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구역 나눔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각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09. 20	09. 27	10. 04
대표 기도	이수현 집사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성경 봉독	이수현 집사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헌금 위원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안내 위원	황희순 집사	황희순 집사	박재기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영의 양식으로 삼시다(고후10~13장, 신1~16장)
2. 제직회-의논은 단체 카톡방에서 하며, 회계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3. 동정-교단 선교부로(GMS)부터 유럽지역 대표로 임명 받아 2년 간 섬기게 되었습니다.
4.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5. 주일예배-정해진 시각에 있는 곳에서 예배에 동참하십시오(YouTube에서 브레멘한민 교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대면예배 참석에 힘쓰시기를 권면합니다
6. 나눔의 시간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기쁨을 나누는 교회(빌2:28)”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민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새번역) 다같이
- * 찬 송 Gemeindelied 215장 다같이
- 기 도 Gebet 유미경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마 22 : 36 - 40 (신p38) 유미경 집사
(Matthäus 22:36-40)
- 설 교 Predigt 성경적인 자존감! 이상호 목사
- * 찬 송 Gemeindelied 218장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이수현 집사

말씀의 잣대

이 세상 모든 나쁜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일지라도 스스로는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분쟁과 비극의 원인이지요. 뉴스를 보면 비열하게 타락한 정치인, 교활한 기업인과 법조인, 언론인, 겉과 속이 다른 지도층 인사의 부끄러운 작태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사회를 망치는 것은 생계형 좀도둑의 하부 계층 사람들이 아니라 넘치도록 많이 가지고도 끝없는 탐욕과 영달의 노예가 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합법적으로 큰 죄를 저지르는 상층부 사람들일 공산이 큼니다. 그런데 저 고약한 자들의 인생 행보를 들여다 보면 거기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어떤 나쁜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인 경우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조금씩 타협하거나 잠시 양심의 눈을 살짝 감는 등 조금씩 어긋나기를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나쁜 사람의 범주에 속해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평소 자기의 행동에 대해 자기 자신의 잣대로 재지 맙시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재는 일처럼 헛된 일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보호 본능, 자리 합리화 본능 등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헛것들로 중무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항상 성경 말씀을 읽기로 합시다. 그리하여 나의 행동이나 남의 행동이나 매사를 말씀의 잣대로 재단하고 계측하기를 생활화합시다. 사람의 잣대는 결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금 되어 만납시다 / 이만재

*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의 죄와 고통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 Johann Wolfgang von Goethe(시인, 극작가, 철학가) -